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괴리 배경 및 시사점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본부장 김인구)는 1월 23일 조사연구보고서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괴리 배경 및 시사점」을 발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최재혁 조사역

Tel : (042)601-1229 Fax : 601-1214 E-mail: [daejeon@bok.or.kr](mailto:daejeon@bok.or.kr)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괴리 배경 및 시사점

202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작성자> 경제조사팀 조사역 최재혁  
<조언자> 경제조사팀 팀장 김현철



**차 례**

**< 요약 >**

<b>I. 검토배경</b> .....	<b>1</b>
<b>II.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동향</b> .....	<b>2</b>
<b>III.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전국대비 괴리 배경</b> .....	<b>5</b>
<b>IV. 평가 및 시사점</b> .....	<b>11</b>

**< 참고문헌 >**

##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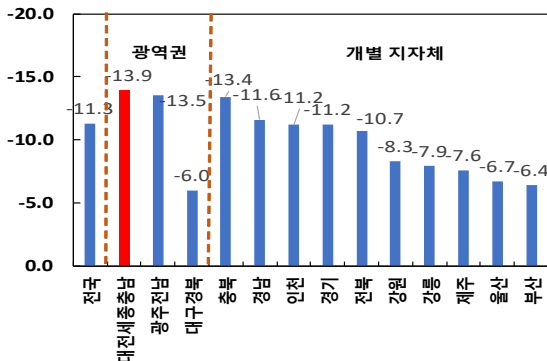
①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이하 CCSI)는 최근 들어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다.

-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는 2024년 6월 전국 수준을 하회한 이후 3~4p 낮은 수준을 6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다.

② 지역별 CCSI를 비교해본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의 CCSI 하락폭은 전국을 포함한 14개 지역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CCSI를 구성하는 세부 개별지수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34.6%)이 하락을 크게 설명하였다.
- 현재의 생활형편과 체감경기는 6개월 전에 비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형편과 경제여건에 대한 전망 역시 계속 나빠질 것이란 응답 비중이 우세하다.
-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 소비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이후 지역별 CCSI 하락폭<sup>1)</sup>**



주: 1) 전년말 대비 하락폭, 2024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세부 CSI 항목별 하락폭과 기여도**

항목	하락폭 <sup>1)</sup>	기여도 <sup>2)</sup>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13.9	100.0
①향후경기전망CSI	△23.0	20.9
②현재경기판단CSI	△18.0	13.7
③소비지출전망CSI	△11.0	25.2
④생활형편전망CSI	△ 8.0	14.4
⑤현재생활형편CSI	△ 6.0	12.2
⑥가계수입전망CSI	△ 5.0	13.7

주: 1) 23년말 대비 24년말 기준  
 2) 각 구성지수별 표준화 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③ 최근 전국대비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괴리 배경에는 ① 실물지표와 심리지표 간 연계성 저하, ② 청년층 세대의 부정적 경기인식, ③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체감경기 저하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최근 들어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CCSI는 하락하며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실물지표가 CCSI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②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청년층과 고령층 간 체감경기 인식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부정적인 경기인식 경향이 있는 청년층이 많은 점도 CCSI의 하향편의에 기여한 모습이다.

- 청년층 및 중·장년층은 미래의 경제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긍정적(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층과 중·장년 및 고령층의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 분석 결과 기준

③ 직업별로도 체감 심리지수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경우 업황 부진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봉급생활자보다 체감경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024년 4월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경기과 가계수입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⑤ 전국 대비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괴리 심화로 자칫 소비자심리 저하가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통해 실물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다시 소비자심리를 한층 더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① 단기적으로 제조업 호조에 따른 경기와 소비자심리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부동산건설 등 비제조업 부문의 업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차원에서 서비스업 활성화와 부동산경기 부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에게 찾고 싶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자영업자의 업황 개선과 소비자심리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민관합동으로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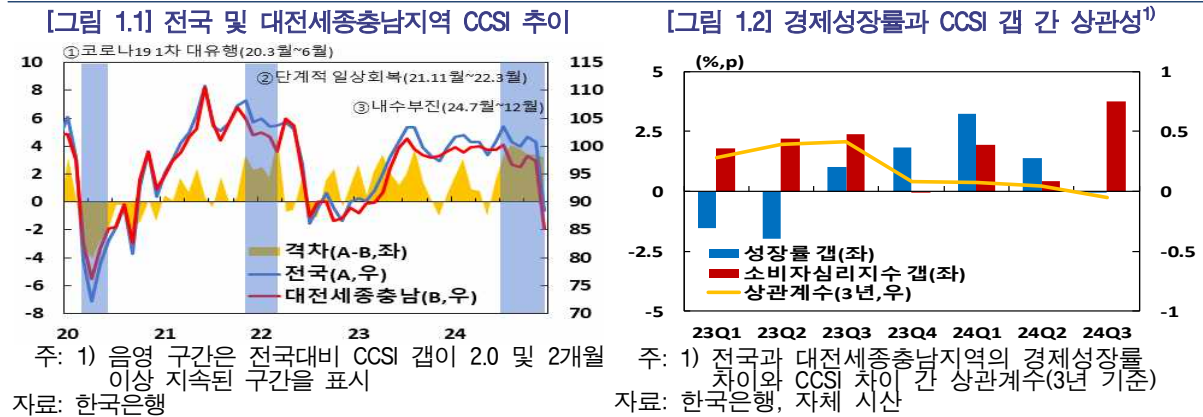
② 중장기적으로는 연령별/직업별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합리화 노력과 아울러 금융·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청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부 과도한 차입 등으로 원리금 상환 압박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과 자영업자의 합리적인 채무 재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I. 검토배경

- 1.1.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이하 CCSI)는 최근 들어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표본 개편이었던 2022년 7월 이후 대체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하락폭이 확대되며 2024년 6월 이후 전국에 비하여 3~4p 낮은 수준을 6개월 연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최장기간<sup>1)</sup>이다.
- 1.2. CCSI는 경기선행지수 중 하나<sup>2)</sup>로 경제여건에 따라 움직이나 인식차에 따라 지역별로도 괴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2021년 11월 이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경제성장 등락 등에 따라 전국과의 격차도 확대 또는 축소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2024년 2/4분기 이후로는 플러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CCSI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 경제성장률과 CCSI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며 현 괴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최근 전국과 괴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 기간도 길어지는 모습



- 1.3.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전국 대비 가계의 인식차가 확대된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령별, 직업군별 소비자심리가 다르게 인식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자체와 중앙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전세종충남지역 가계도 정책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는 2016년 6월 이후 국내의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확대로 최장 11개월 동안 전국대비 2.5p~5.7p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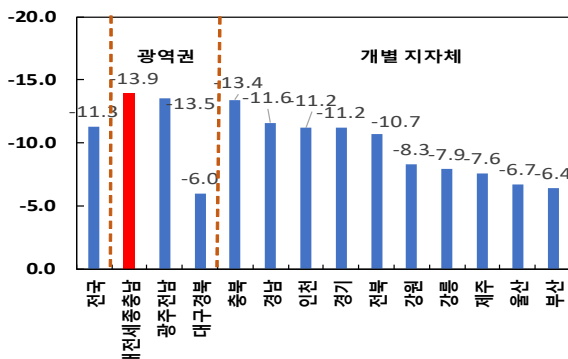
2) 소비자심리지수는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하위항목중 경제심리지수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이다.(통계청)

## II.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동향

2.1. 지역별 CCSI를 비교해본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의 CCSI 하락폭은 전국을 포함한 14개 지역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2024년말 기준)는 2023년말 대비 13.9p 하락하여 전국 하락폭(-11.3p)을 상회하고 광역경제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sup>3)</sup>하였다. 한편, 2024년중 전국 CCSI와 격차의 변동성(표준편차 기준)을 살펴보면 광역권 중에서는 대구·경북(1.65)과 광주·전남(1.47) 지역 사이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전체 13개 지역 중 6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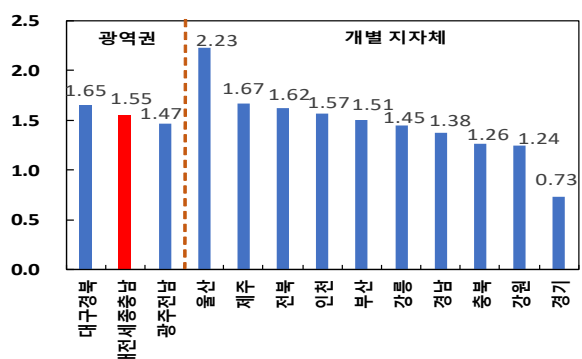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하락폭은 가장 크고 변동성도 평균보다 높은 모습이다

[그림 2.1] 2024년 이후 지역별 CCSI 하락폭<sup>1)</sup>



주: 1) 전년말 대비 하락폭, 2024년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2] 2024년 이후 지역별 CCSI 변동성<sup>1)</sup>



주: 1) 2024년중 전국과 지역 CCSI 값의 표준편차  
자료: 한국은행

2.2. 이와 같은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세부 개별지수<sup>4)</sup>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계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34.6%)이 CCSI 하락을 크게 설명하였다. 2024년중 이뤄진 가계의 부정적 인식 기저에는 소비지출전망CSI(25.2%)과 향후경기전망CSI(20.9%), 생활형편전망CSI(14.4%) 등의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답자들은 가계의 생활형편(26.6%) 보다도 경기 전반에 대한 인식(34.6%)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sup>5)</sup>(25.9%)보다는 6개월 후 당면하게 될 여건<sup>6)</sup>(35.3%)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3) 대전세종충남지역과 광주전남지역은 2024년 3/4분기중 1.9%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1.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하락폭은 다소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지역별 경제성장률은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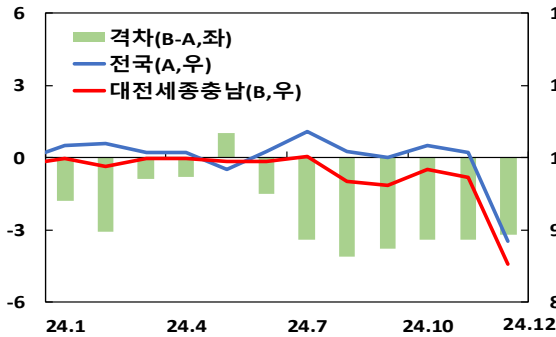
4)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①현재생활형편CSI, ②현재경기판단CSI, ③생활형편전망CSI, ④향후경기전망CSI, ⑤가계수입전망CSI, ⑥소비지출전망CSI 등 총 6개 개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5)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활형편과 경기 판단에 대한 평가 비중이다.

6) 6개월 후 당면하게 될 생활형편과 경기 전망에 대한 평가 비중이다.

2024년중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움직임은 가계의 체감경기 판단과 전망에 크게 영향

[그림 2.3]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2.1] 세부 CSI 항목별 하락폭과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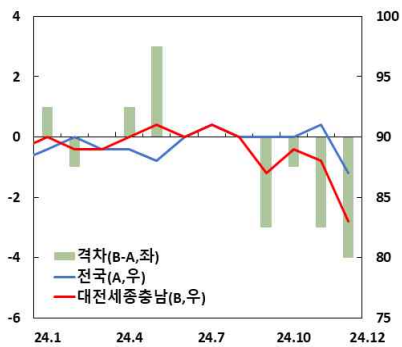
항목	하락폭 <sup>1)</sup>	기여도 <sup>2)</sup>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13.9	100.0
①향후경기전망CSI	△23.0	20.9
②현재경기판단CSI	△18.0	13.7
③소비지출전망CSI	△11.0	25.2
④생활형편전망CSI	△ 8.0	14.4
⑤현재생활형편CSI	△ 6.0	12.2
⑥가계수입전망CSI	△ 5.0	13.7

주: 1) 23년말 대비 24년말 기준  
2) 각 구성지수별 표준화 후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3.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응답자들은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이 2024년 7월 이후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가운데 전국 평균대비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중에는 현재 생활형편과 경제 여건이 전국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생활형편과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며 점차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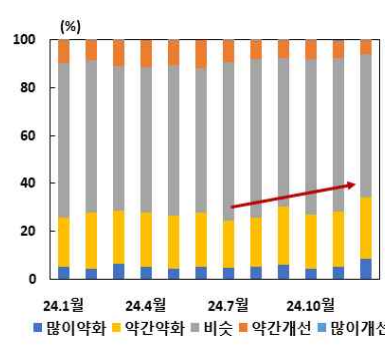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의 현재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

[그림 2.4] 현재생활형편 C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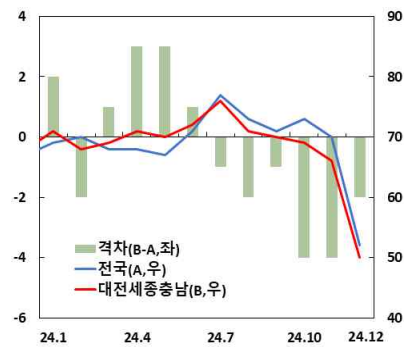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2.5]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응답비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현재경기판단 CSI



자료: 한국은행

2.4. 한편 대전세종충남지역의 6개월 후 생활형편과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계속 나빠질 것으로 답한 응답자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4년중 도·소매판매<sup>7)</sup> 등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 조짐이 불명확<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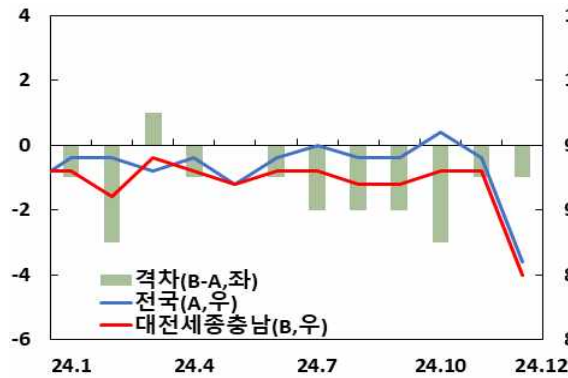
7) 2024.1분기~3분기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8)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24년과 2025년 경제전망을 2.2%와 1.9%로 각각 0.2%p 하향조정한 바 있다.



한 데다 12월 들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응답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향후 가계가 당면할 생활형편과 함께 경제 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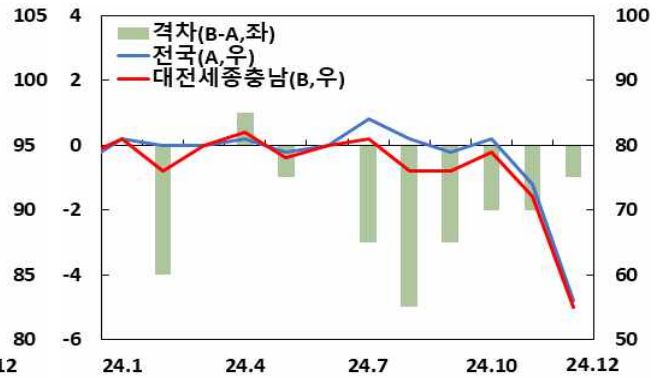
2024년중 향후 생활형편과 경제 여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2024.12월 들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2.7] 생활형편전망 CSI



자료: 한국은행

[그림 2.8] 향후경기전망 C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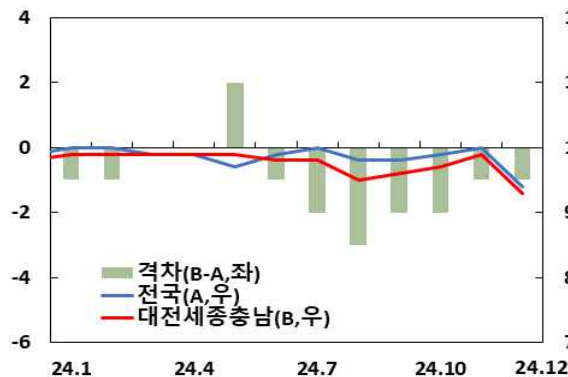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5. 한편 대전세종충남지역의 6개월 후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 소비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기준치(100)<sup>9)</sup>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지출전망CSI는 6개월 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상당히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국과 비교해 볼 때, 6개월 후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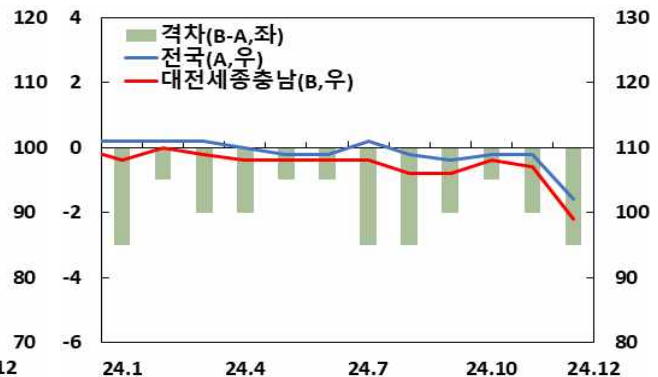
향후 가계 소비여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

[그림 2.9] 향후 가계수입전망 CSI



자료: 한국은행

[그림 2.10] 향후 소비지출전망 CSI



자료: 한국은행

9)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은 경우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 Ⅲ.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전국대비 괴리 배경\*

\*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기여도가 높은 소비자동향지수(①소비지출전망CSI, ②향후경기전망CSI, ③생활형편전망CSI, ④현재경기판단CSI 등)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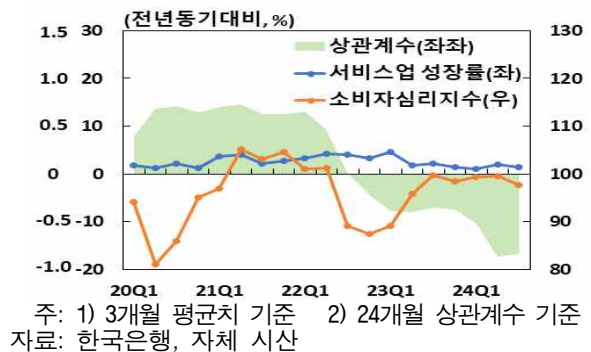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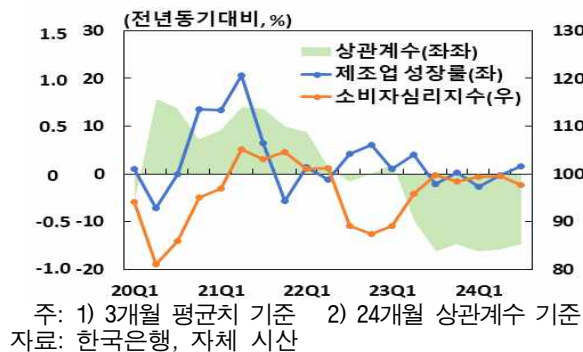
#### 1. 최근 경제성장과 심리지표 간 연계성 저하

3.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제성장률<sup>10)</sup>과 CCSI는 대체로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두 지표 간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지표와 심리지표 간 연계성이 낮아졌다. 202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CCSI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가 동행하였다. 한편 2021년 2/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큰 폭 하락하였으나 CCSI는 2022년 3/4분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체감경기가 경제성장률에 다소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중(20.1/4분기~22.3/4분기)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 간 상관계수는 0.44 내외를 기록(제조업: +0.37, 서비스업: +0.48) 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나 CCSI는 하락하며 경제성장률과 체감경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두 지표 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2.4/4분기~24.3/4분기 중 두 지표 간 상관계수는 오히려 역의 관계로 전환(제조업: -0.73, 서비스업: -0.83)하기도 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지표와 CCSI 간 상관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2023년 이후 오히려 역의 관계로 전환

[그림 3.1] 대전세종충남지역 제조업과 CCSI<sup>1)</sup> 간 상관성<sup>2)</sup> [그림 3.2] 대전세종충남지역 서비스업과 CCSI<sup>1)</sup> 간 상관성<sup>2)</sup>



10) 지역소득 통계(통계청)에서 시도별 GRDP를 공표하고 있으나 연단위 데이터로 제공되고 2024년도 데이터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한계가 있어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지역경기전망지수(RECI)로 경제성장률을 대체하여 추산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BOK 이슈노트, 2023)을 참조하기 바란다.

3.2.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역 주택매매가격 회복 지연 등으로 주택경기가 부진을 지속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sup>11)</sup>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가능한 전기간(2011년~2024년 3/4분기)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률, 생활물가지수, 가계대출금리, 주가지수 등 가계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CCS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용률과 생활물가지수 같은 실물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계대출금리와 주가지수 등의 금융지표도 1% 이내 수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생활물가지수, 가계대출금리, 주택매매가격지수, 주가지수, 고령화율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기간은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은 데 기인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제조업 등의 실물지표는 상대적으로 전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을 보여 이외 요인의 영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경기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됨<sup>12)</sup>으로써 주택매매가격지수가 CCSI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전과 세종의 부동산경기 부진 등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역내 전체 소비자심리지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 이후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

11)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결정요인 분석」(p.7)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대전세종충남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는 전년동기대비기준 22.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 참고 1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결정요인 분석

김영준(2021)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하였다.

$$y = \beta_0 + \beta_1x_1 + \beta_2x_2 + \beta_3x_3 + \beta_4x_4 + \beta_5x_5 + \beta_6x_6 + \beta_7x_7 + \beta_8D + \epsilon$$

CCSI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가계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요인을 설명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는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성장률, 고용률, 생활물가지수, 가계대출금리, 주택매매가격지수, KOSPI 주가지수, 고령화율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계대출금리와 KOSPI 주가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추산하였다.

분석과정에서 CCSI는 월평균 데이터를 분기별 지수로 변환한 뒤 로그값을 취하여 분석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분기대비 로그 차분값을 사용하였다. 기타 변수들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였다.

설명 변수	변수 설명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자체추정, 대전세종충남지역 지역경기전망지수(RECI)로 실질 GDP 성장률을 대체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세종충남지역 고용률 자체 추산
생활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대전세종충남지역 생활물가지수 자체 추산
가계대출금리	한국은행, 전국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대전세종충남지역 주택가가격지수 자체 추산후 로그 차분
주가지수	KOSPI 주가지수 분기평균 데이터
고령화율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대전세종충남지역 고령화율 자체 추산 (65세 이상 인구/전연령 인구)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표시 더미 데이터(2020.1Q ~ 2022.4Q)

설명변수	종속변수(log CCSI)		
	(1) 전기간 (2011.Q1~2024.3Q)	(2) 코로나19 이전 (2011.1Q~2019.4Q)	(3)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1Q~2024.3Q)
지역경기전망지수(RECI)	-0.002 (0.003)	-0.004 (0.004)	0.006 (0.007)
고용률	0.017* (0.009)	0.015 (0.010)	-0.044 (0.047)
생활물가지수	-0.015** (0.007)	-0.017* (0.010)	-0.006 (0.032)
가계대출금리	0.003*** (0.001)	0.002* (0.001)	0.000 (0.003)
주택매매가격지수	1.215 (0.831)	2.650* (1.481)	3.252* (1.662)
주가지수	0.002*** (0.001)	0.002*** (0.001)	-0.001 (0.002)
고령화율	0.013 (0.011)	0.030** (0.013)	-0.217 (0.125)
코로나19	-0.154*** (0.033)	-	-0.005 (0.066)
관측치	55	36	19
R <sup>2</sup>	0.55	0.43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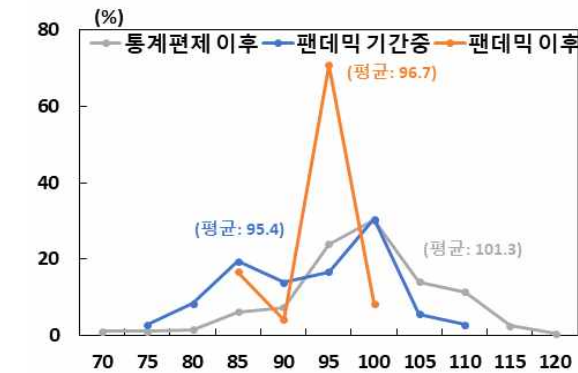
주 :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 2. 청년층의 부정적 경기인식에 따른 하향 편익

3.3.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는 과거보다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며 하향편익이 발생하였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소비자동향조사 통계 월편제(09.1월) 이후 지수별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01.3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평균 95.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 2년간(23.1월~24.12월) 평균 96.7 수준을 보이며 과거 평균치 수준을 전반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제성장률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잠재성장률이 과거 대비 낮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경제성장률 이외 요인에 기인<sup>13)</sup>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는 하향 평준화되는 편익이 존재

[그림 3.3] 대전세종충남지역 기간별 CCSI 히스토그램 비교 [그림 3.4]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성장률 수준 비교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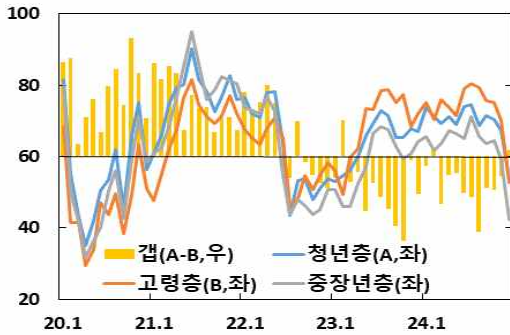
3.4. 하향편익의 강화 요인중 하나로 연령별<sup>14)</sup> CCSI 추이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청년층의 부정적 경기인식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팬데믹 이후 현재경기판단CSI와 향후경기전망CSI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과 고령층 간 향후경기전망에 대한 격차는 같은 기간 중 최대 15p나 확대되는 등 청년층과 고령층 간 경기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13) 대전세종충남지역의 현재생활형편CSI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은 0.823 정도에 그치며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영준, 2021), 일부 논문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연령 등에 따라 인식차가 발생함을 지적한 바 있다.(Cummins et al., 2024)

14) 연령별 단순 비교를 위해 20~30대를 청년층, 40~50대를 중·장년층, 60대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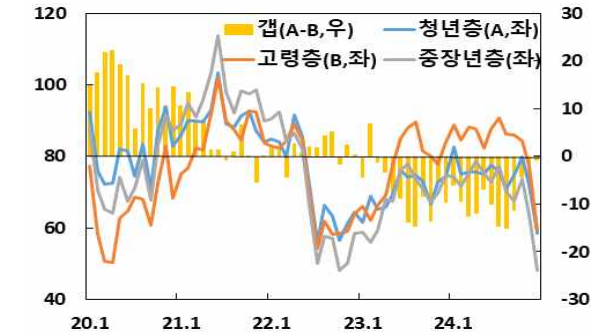
최근 들어 고령층과 청년층 및 중·장년층 간 체감경기에 대한 인식차가 확대

[그림 3.5] 연령별 현재경기판단 C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6] 연령별 향후경기전망 C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3.5.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우 전국과 대비하여 고령화 속도가 느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전국과의 체감지수 괴리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기 인식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인 고령화율이 2040년에 전국은 34.3%, 대전세종충남은 32.9%로 각각 2024년 대비 각각 14.3%p, 13.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이 전국 대비 소폭이나마 낮지만 단기적으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청년층 대상 정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CSI 하향 편이가 심화될 우려 존재

[표 3.1] 대전세종충남지역 고령화 추이

(만명, %, %p)

	전체인구			65세이상인구			고령인구 비중			
	2015년	2024년	2040년	2015년	2024년	2040년	2015년	2024년 (A)	2040년 (B)	(B-A)
전국	5,153	5,122	5,006	678	1,026	1,715	13.1	20.0	34.3	+14.3
대전세종충남	381	397	414	53	78	136	13.9	19.7	32.9	+13.2
대전	152	144	137	17	26	44	10.9	18.0	31.8	+13.8
세종	21	39	49	2	5	11	10.6	11.6	21.7	+10.1
충남	208	214	227	34	48	82	16.4	22.3	36.0	+13.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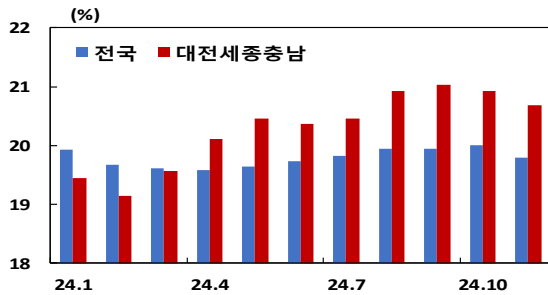


### 3. 업황부진이 심화된 자영업자의 비중 증대

- 3.7. 대전세종충남지역 자영업자들의 업황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체감 심리지수 격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2023년중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sup>15)</sup>의 현재경기인식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말부터 자영업자의 현재경기인식은 봉급생활자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직업별로 체감경기가 차별화되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2024년 들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 3.8. 특히 자영업자들의 업황부진이 가중되면서 지역내 폐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인식차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동반된 명목임금 인상, 높은 금리부담 지속 등으로 최근 5년간 대전세종충남지역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건수 증감률이 3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 신고 건수는 2023년 증가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폐업사유 중 지역내 소비 침체 등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응답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6개월 뒤 소득이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자영업자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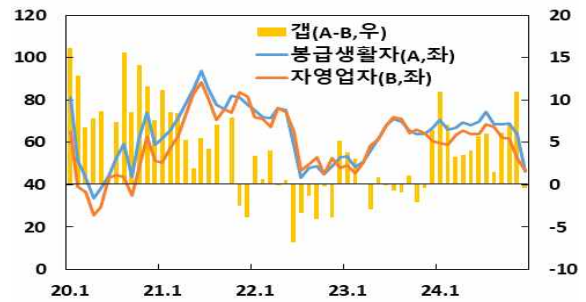
####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타격은 봉급생활자보다 자영업자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3.7] 자영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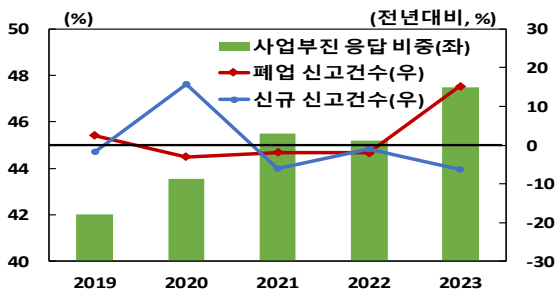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8]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현재경기판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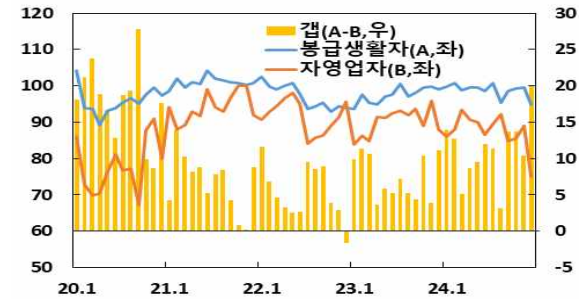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3.9] 최근 5년 대전세종충남지역 개인사업자<sup>1)</sup> 현황



주: 1)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

[그림 3.10]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가계수입전망 차이



자료: 한국은행

15)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 IV.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 4.1.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가 2024년 들어 장기평균 수준을 대체로 하회하는 가운데 지역 내 체감심리 부진이 한층 심화되면서 전국 CCSI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CCSI는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2024년 중 하락폭이 광역경제권 중 가장 크고 변동성은 전 지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응답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여건과 향후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 4.2. 최근 들어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의 전국 대비 괴리가 지속되는 이유는 실물지표와 CCSI 간 연계성이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과거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지표와 CCSI는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4년에 들어서며 지역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민의 체감경기 수준이 제조업 중심의 실물지표보다는 주택경기, 내수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 산업부문의 부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4.3. 또 다른 괴리 요인으로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응답자의 연령별/직업별 구성이 전국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응답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층과 달리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의 직업별로도 현재경기에 대해 응답자의 판단이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영업을 영위하는 응답자들은 봉급생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기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동일한 경제여건 하에서도 응답자 그룹별 체감심리가 다른 만큼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시사점

- 4.4.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유의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은 IT산업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전국보다 더 크게 소비자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심리 저하가 지역 내 소비 위축과 경기 부진 심화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자심리가 나빠지는 자기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증적으로도 소비심리 위축이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sup>16)</sup>를 초래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전세종충남 지역 차원에서 소비자심리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 4.5. **단기적으로 제조업 호조에 따른 경기와 소비자심리 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부동산건설 등 비제조업 부문의 업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차원에서 서비스업 활성화와 부동산경기 부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업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축제를 한층 더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과 역내 자영업자들의 업황 개선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의존도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외부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에게 찾고 싶은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내 자영업자의 업황 개선과 소비자심리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합동으로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경기의 경우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지만 지자체에서도 주택수요에 맞게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지역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과도한 불안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순환변동치)보다 약 1분기,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보다 약 5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상관계수는 각각 0.88, 0.77로 나타났다(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14)

지방 축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민들의 체감심리 개선 → 내수 소비를 진작

[표 4.1] 2024년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요 관광·축제

구분	축제명	일정	추산 방문객 (단위: 만 명)
■ 대전광역시	• 대덕 물빛 축제	24.3.29.~5.6.	70
	• 대청호 벚꽃 축제	24.3.29.~3.31.	-
	• 대전 0시 축제	24.8.9.~8.17.	200
	• 대전 빵 축제	24.9.28.~9.29.	14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축제	24.10.9.~10.12.	20
	• 조치원 복숭아 축제	24.10.26.~10.28.	8
■ 충청남도	• 계룡 군 문화축제	24.10.2.~10.6.	114
	• 논산 딸기 축제	24.3.21.~3.24.	45
	• 한산 모시 문화제	24.6.7.~6.9.	15
	• 천안 흥타령 춤 축제	24.9.25.~9.29.	89
	• 서산 해미읍성 축제	24.10.2.~10.5.	27
	• 보령 머드 축제	24.7.19~8.4.	165

자료 : 각 축제 주관사 및 지역 언론

4.6. 중장기적으로는 연령별/직업별로 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합리화 노력과 아울러 금융·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경우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정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과도한 차입 등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청·장년층의 경우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 재조정 등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방안을 강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적인 업황 부진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기관과 함께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참고 2 소비자심리지수 기간별 비교 시 유의점

대전세종충남지역 CCSI 움직임을 비교·해석할 경우 기간별 단순 비교에 유의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소비자동향조사도 미응답이나 설문참여 이탈로 인한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표본 마모를 조정하고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전국과 지역 간 통계 정합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통상 4~5년 주기로 소비자동향조사의 표본집단을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본 개편 전후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반영되면서 CCSI 내 구조적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의 공표월과 전월의 CCSI 간 차이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표본 내 계층별 구성비중 및 응답 성향의 변화로 표본 개편 시점 전후로의 시계열 비교 시에는 표본 개편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본개편 전후 시기로 CCSI 지수의 단순 비교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9.1월 소비자동향조사 월별 편제 이후 표본 개편 내역

구분	표본 개편 내용	일시
■ 최초 편제	소비자동향조사를 월별로 편제하여 최초 공표	2009.1월
■ 1차 개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반영,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가구수를 대폭 확대(310개 → 600개)	2013.1월
■ 2차 개편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반영, 세종특별자치시 신설(2012.7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세종 지역을 별도로 분리 후 표본가구수를 확대(600개 → 700개)	2018.9월
■ 3차 개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반영	2022.7월

자료 : 한국은행

## < 참고문헌 >

- 김영준·신석하(2016), “우리나라 소비자 특성별 체감경기와 거시경제지표 간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 17권 11호, 2016, 474~482p
- 김영준(2021), “우리나라 소비자 체감경기 결정요인의 지역별 차이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 55권 4호, 2021, 419~429p
- 박성경(2021), “코로나19 이후 경기지역 소비자의 소득수준·종사상지위별 소비심리 변화 -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지수를 중심으로 -”, 한국은행 경기본부
- 이종웅·김윤재(2024),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 한국은행 조사국
- 이준호 외(2024),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경제전망보고서(24.8월), 한국은행
- 정민수 외(2023),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14), “소비자동향조사의 이해”
- Cummings, R., Harris, B., & Mahoney, N. (2024). The paradox between the macroeconomy and household sentiment. Brookings Institution.